18일 오후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2019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풋볼 챔피언십(동아시안컵) 남자부 대한민국과 일본의 경기에서 1-0으로 우승을 거둔 대한민국 선수들이 트로피를 들고 기쁨을 나누고 있다.

롤러코스터 같던 벤투호 올라가면서 마무리했다

일본 꺾고 동아시안컵 우승…18번 A매치에서 12승4무2패

부산에서 열린 동아시안컵이 막을 내리면서 벤투호의 2019년 여정도 일단락됐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18일 오후 부산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펼쳐진 일본과의 '2019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안컵) 최종 3차전에서 1-0으로 승리했다. 1차전에서 홍콩을 2-0으로 제압하고 2차전에서 중국을 1-0으로 꺾었던 한국은 3전 전승으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지난 2015년 중국 우한 대회와 2017년 일본 도쿄 대회에서 연거푸 우승했던 한국은 3연패에 성공하면서 통산 우승 기록을 5회로 늘렸다. 대회를 개최하는 팀은 정상에 오르지 못했던 동아시안컵의 묘한 징크스를 깨뜨린 첫 번째 국가로도 이름을 남겼다. 지난 2000년 이후 19년 만에 안방에서 거둔 한일전 승리까지, 여러모로 얻은 것이 많았다.

이날 일본과의 경기는 동아시안컵의 최종전이면서 동시에 축구대표팀의 2019년 마지막 국가대항전이었다. 유종의 미. 축구 팬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안겼다.

사실 2019년은 실망으로 시작했다. 대표팀은 1월 UAE에서 열린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에 참가했다. 무려 59년 동안 되찾지 못하고 있는 정상 탈환이라는 확실한 목표가 있었던 대회다. 기성용, 구자철 등 베테랑들과 함께 하는 마지막 아시안컵이었고 손흥민이라는 에이스가 전성기를 구가할 때 치르는 대회라 기대가 컸는데 결과는 8강 중도하차였다. 벤투 감독 부임 후 처음 겪는 시련이었다.

그래서 3월 2연전이 중요했는데 상대가 만만치 않았다. 대표팀은 3월22일 볼리비아, 3월26일 콜롬비아 등 남미 국가 두 팀과 2연전을 치렀다. 특히 콜롬비아는 남미에서도 강호로 꼽히는 팀이라 혹여 크게 패해 팬들의 실망감을 가중시키지는 않을까 우려의 시선이 적잖았다.

그런데 결과는 2연승이었다. 벤투호는 볼리비아를 1-0으로 꺾은 뒤 콜롬비아를 2-1로 제압하는 이변을 만들었다. 세계적인 강호와도 '우리 축구'를 펼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켜본 팬들은 다시 벤투 감독에게 큰 지지를 보냈다.

그런데 '실전'이라 부를 수 있는 카타르 월드컵 2차예선 돌입과 함께 브레이크가 걸렸다. 이란, 호주,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등 궁극적인 경쟁자가 아닌 약체들과의 2차예선인데도 시원한 승리가 나오지 않았다. 10월에 북한과 0-0, 11월에 레바논과 0-0 등 한 수 아래 팀들과의 고전이 이어지자 팬들이 다시 폭발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작된 동아시안컵인데 출발이 또 좋지 않았다. 대표팀은 홍콩, 중국과의 1, 2차전에서 각각 2-0과 1-0으로 승리했다. 이기기는 했으나 상대의 수비를 효과적으로 뚫지 못했거나(홍콩전) 수많은 기회를 잡고도 결정을 짓지 못하는(중국) 비효율적인 내용이 나왔고 축구팬들은 물 없이 고구마를 먹은 듯 답답해했다.

그런데 벼랑 끝에서 반전에 성공한 벤투호다. 추가골이 터지지 않은 것은 아쉬움이 남으나 그래도 근래 가장 좋은 경기력을 보였다는 평가와 함께 팬들도 흡족한 표정을 지었다.

덕분에 좋은 흐름 속에서 2020년을 맞이할 수 있게 됐다. 참고로 벤투호는 2019년 18번의 A매치를 치러 12승4무2패라는 전적을 남겼다. 꽤 괜찮은 성적이다.

'마이너 거부권' 김광현, 이제는 선발 경쟁이다

세인트루이스 1~3선발 탄탄해…대부분 우완이라 '좌완' 유리

이제는 선발 경쟁이다.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 계약하며 메이저리그 진출이라는 꿈을 이룬 김광현(31)이 다음 단계를 위해 나아갈 준비를 앞두고 있다.

김광현은 지난 18일(한국시간) 세인트루이스와 공식 입단 계약을 체결했다. 2년 간 800만달러, 인센티브 포함 최대 1100만달러(약 128억원)가 조건이다.

연간 400만달러(약 46억7000만원)를 보장받는 계약이다. 이는 메이저리그에서도 작지 않은 규모다. 여기에 김광현은 '마이너리그 강등 거부권'도 보장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너 거부권은 선수에게 유리한 사항이다. 김광현이 원하지 않는 이상 구단은 김광현을 마이너리그로 내려보낼 수 없다. 김광현보다 먼저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류현진, 윤석민과 같은 조건이다.

악용 가능성도 있다. 윤석민이 그랬다. 선수를 처음부터 메이저리그 로스터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마이너 거부권은 의미가 없어진다. 하지만 김광현의 경우 몸값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다.

계약 조건을 살펴보면 세인트루이스가 김광현에게 꽤 큰 기대를 걸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 존 모젤리악 세인트루이스 단장은 "김광현은 스프링캠프에서 경쟁할 것"이라며 그의 보직이 선발투수로 확정되지 않았음을 밝혔다.

김광현은 당연히 선발투수로 뛰는 것이 목표다. KBO리그에서도 국가대표팀에서도 김광현의 보직은 언제나 선발이었다. 세인트루이스도 김광현을 선발투수로 보고 있지만, 직접 그의 기량을 체크한 뒤 보직을 결정하겠다는 생각이다.

세인트루이스는 잭 플래허티, 마일스 마이콜라스, 다코타 허드슨 등 1~3선발이 탄탄하다. 4,5선발을 맡았던 마이클 와카는 뉴욕 메츠와 FA 계약을 맺고 팀을 떠났다. 남은 2자리를 놓고 김광현이 경쟁자들과 싸워야 하는 상황이다.

'베테랑' 애덤 웨인라이트, '유망주' 알렉스 레예스가 김광현의 경쟁자로 꼽힌다. 팔꿈치 부상 이후 불펜에서 뛰고 있는 카를로스 마르티네스도 언젠가는 선발로 돌아와야 한다. 1~3선발은 물론 웨인라이트, 레예스, 마르티네스까지 모두 우완이라는 점에서 '좌완'인 김광현이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뉴스1

류현진 vs 김광현 = 커쇼 vs 범가너…美언론 비교

미국 언론이 류현진(32)과 김광현(31)의 관계를 클레이튼 커쇼(31)와 매디슨 범가너(30)에 비교했다.

미국 스포츠 매체 '디 애슬레틱'은 18일(한국시간) 김광현의 세인트루이스 입단 소식을 자세히 전하며 류현진(32)을 언급했다.

디 애슬레틱은 "김광현은 류현진만큼은 아니지만 KBO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다"며 "김광현이 류현진만큼 잘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커쇼만큼 성적을 내지 못한 범가너를 평가절하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류현진과 김광현은 KBO리그에서 함께 뛰던 시절 최고의 좌완 투수로 꼽혔다. 1년 선배인 류현진의 존재감을 김광현이 따라잡지 못했지만, 김광현은 소속팀 SK를 4차례 한국시리즈 우승으로 이끌었다. 한화 이글스에서 우승을 경험하지 못한 류현진과 다른 점이다.

커쇼와 범가너의 관계도 비슷한 점이 많다. 커쇼가 범가너보다 1년 먼저 메이저리그에 데뷔했으며 개인 성적도 앞섰지만, 팀 성적을 놓고 보면 범가너가 우위에 있다. 커쇼의 소속팀 LA 다저스가 월드시리즈 정상에 오르지 못한 반면, 범가너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서 3차례나 정상에 섰다.

매체는 메이저리그 진출 전 KBO리그에서 올린 두 선수의 성적도 비교 분석했다. 류현진은 7시즌 동안 98승52패 평균자책점 2.80 WHIP 1.15 9이닝당 탈삼진 8.8개, 김광현은 12시즌 동안 136승77패 평균자책점 3.27 WHIP 1.33 9이닝당 탈삼진 7.8개를 기록했다며 비교적 상세한 기록까지 언급했다.

뉴스1